

이어령 교수는 자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딱 30초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30초면 충분한데, 바쁘다는 이유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일에만 몰두하다
딸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나,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30초를
자녀들에게 기꺼이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 30초를 이웃에게도 줍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사회가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양창삼 '하나님관계와 인간관계' 중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1)





구속의 시작(1)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지난 호에서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그 결과는 선과 악을 자기중심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을 정죄하고 분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이후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성과 죄악이 가득해져 가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실 길 원하셨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와 언약을 맺어 생명을 보존하실 계획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창 6: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 6:18)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로 세상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후 물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후, 마침내 물이 다 걷히게 됩니다(창 8:13). 물이 다 걷히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똑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 9: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창 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이 노아 언약, 즉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 뒤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지개(무지개)의 원래 뜻은 활(bow)이라는 뜻입니다. 활은 고대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진노하셔서 물로 공격하셨지만,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것이죠. **인간과의 화해**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비온 뒤 무지개를 보거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5년 1월 전주동부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김지세 목사가 부임했다. 무주읍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고성모 목사의 뒤를 이어 전주동부교회 강단을 지키게 된 것이다.

김지세 목사가 사역하던 기간은 3차에 걸쳐 새 예배당 건축에 착수하고,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분열이 발생하며, 이단집단인 천부교와 치열한 영적 투쟁을 벌이던 시기였다. 이처럼 끊임없는 격동 속에서도 김지세 목사는 1966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담임목사의 자리를 지켰다.

앞선 목회자들이 대부분 2~3년간 짧게 재임했던 것에 비해, 김지세 목사는 비교적 장기 목회를 한 셈이다. 이후의 역사를 보아도 27년간 담임목사를 지낸 강성한 원로목사를 제외하면 최장기 목회를 한 것으로, 그 결과 전주동부교회는 오랜만의 안정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김지세 목사 시절을 기억하는 고령의 성도들은 이복 출신 특유의 강한 억양에, 빠른 속도로 호소력 있게 말씀을 전달하던 설교시간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특히 김지세 목사는 전쟁을 전후로 교회에 어둡게 내려진 그늘들을 완전히 걷어내는데 매진했다. 회원동에서 경원동으로 이름이 바뀐 옛 교회당 터에서 1956년 1차 공사를 통해 구관 동편 예배당 건립을, 1964년 2차 공사를 통해 구관 철거와 수호관 개축을, 1966년 3차 공사를 통해 종탑 건축을 완료했다.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활력을 얻어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전주동부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제5대 김지세 목사



그러자 김 목사는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일꾼들을 여럿 세워 더 강한 기틀을 다졌다. 사경옥·유기완 장로(1955년) 장성우 장로(1957년) 김은성·오삼홍·곽영조 장로(1959년) 박재우 장로(1961년) 김판철·김기호 장로(1966년) 등이 이 기간에 임직한 인물들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960년 전주중부교회와 분립이라는 아픔이 발생했을 때도, 김지세 목사는 매일 교회당에서 기도로 밤을 새우며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갔다. 덕분에 전주동부교회는 다시 곳곳이 일어나 전진해나갈 수 있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1966년 10월에 사임한 후 서울로 이사한 김지세 목사는 이듬해 하나님 품에 안겼다.

| 정재영 기자



▶ 전주동부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12년 동안 재임한 김지세 목사와, 김지세 목사 시무기간인 1965년에 열린 부흥회 모습



박영삼 유방·갑상선
세이유乳외과

원장 박영삼 장로·김옥순 권사 이병길 김성구

3인 진료, 당일 진료 가능, 입원실·수술실 운영

T. 063) 222-0325 (영삼이오) F. 063) 221-03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쇠고개로 347, 2층 (도교육청 앞)



‘섬김의 자세로 걸어온 스승의 길’ 전봉권 원로장로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다. 매일 매시간이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여든이 넘었어도 여전히 ‘현역’이다.

전봉권 장로는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늘 바쁘다. 정년 은퇴와 함께 전주동부교회 원로장로라는 직함을 받은 후에도 주일이면 변함없이 찬양대 맨 뒷자리를 든든하게 버텨주고, 연세 많은 남성성도들의 모임인 ‘원로목장’의 리더 역할을 열심히 감당한다. 평일의 일상은 더욱 분주하다.

월요일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장동교회 전주글로벌시민학교 교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근한다. 학생들과 아침 일찍 만나 먼저 국민체조를 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성품훈련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주중에도 시니어선교회의 선교동원과 교육훈련, 전주장로합창단의 찬양사역, 국제기드온협회 필드오피서로서 성경보급 사역, 전북지도자홀리클럽 사무총장으로서 성서화운동 등에 동참하느라 밤낮 동분서주한다. 대부분이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이다. 이런 생활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학생시절부터 총각집사 시절을 거쳐 교회 중직자로 활동해온 내내 일관되게 살아온 인생이다. 그 계기는 무엇일까?

정읍에서 한의사 집안 손자로 태어나 유년기를 부유하게 지내다가, 6·25 발발로 가세가 기울면서 갑작스레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다. 이 시절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한 결핵까지 발병해 고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좋은 스승들을 만나 얻은 신앙이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청년기에 전주동부교회 5~6대 담임목사를 지내신 김지세 목사님과 임창희 목사님께로부터 신앙지도를 받으며 참

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깨우치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권유받기도 했는데, 이미 제게는 평신도사역자로서 받은 사명의 길에 대한 확신이 더 컸습니다.”

그 확신을 심어준 인물은 전주 신흥고 재학 시절 만난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이었다. 학교 신앙부흥회 강사로 찾아온 전영창 교장을 통해, 스스로에게 교육자로서 소명이 있음을 발견했고 실제 그 일에 투신하게 됐다. 이후 모교에서 첫 교사생활을 시작했고, 상산고를 거쳐 영생고 교장까지 지내며 수많은 제자와 후배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다.

교직에 있으면서 아버지학교, 사이닝글로리 등 전주지역 평신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섰고, 일선에서 퇴직한 후에도 완주군 운주면 계임고등학교 상담소장 역할을 맡아 11년 동안이나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먹고 자며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그사이 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를 맡다가, 신임 찬양대원으로 처음 알게 된 문화영 권사와 교제를 시작해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후 세 자녀를 낳고 손주들까지 3대에 걸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갔다. 성장기를 전주동부교회에서 보낸 자녀들은 각각 교사와 의사로 살아가고 있고, 큰 아들은 필리핀에서 교육선교사로 사역하기도 했다.

“전영창 선생님께로부터 배운 가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믿음으로 평생 살아왔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온 가족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전봉권 장로는 가족들 동의를 얻어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또한 누군가를 세우는 삶, 자신은 썩어지며 새로운 생명들을 얻는 ‘밀알’의 삶이 되리라. 스승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현미·정소연 기자

풍성한 교제 속 영적 성숙도

점점 활성화되는 목장모임



3월부터 구역모임이 목장모임으로 개편된 후, 각 목장별로 거룩함, 순결, 경건, 선함, 긍정성 등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며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목장모임이 대부분 주일 낮에 이루어지며 참여가 크게 늘었고, 매주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성숙

이 깊어지는 모습을 경험하는 중이다. 통닭파티를 벌이거나, 들에서 캐온 썩과 냉이 등을 나누는 등 성도들 간에 교제도 풍성해지고 있다. 모든 목장들이 점점 활성화되어, 각 가정과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말초신경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최조경 기자

부활신앙 더욱 굳건히



부활주일을 앞두고 4월 6일에는 세례식이, 13일에는 성찬식이 각각 거행되며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했다. 올해 세례식에서는 송윤찬·조하니 집사의 쌍둥이자녀 송하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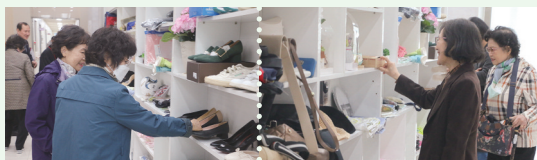
상반기 성례식과 부활절 칸타타 통해

윤, 윤상빈·이수민 성도의 자녀 윤예지, 최승훈·이유진 집사의 자녀 최서윤 등 4명의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학습 1명, 세례 4명, 입교 5명 등 총 14명에 대한 집례가 이루어졌다. 또한 4월 20일에는 찬양위원회(위원장·박영삼 장로) 주관으로 박진철 집사가 지휘하는 전주동부교회 연합 찬양대가 부활절칸타타 <예수>를 연주하며,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했다. ▲학습·박준혁(중등부) ▲세례·최명국(동넙목장), 전수진(고등부), 정민재, 전승재(중등부) ▲입교·함경준, 조하율, 최가은, 정지현, 김원범(중등부) | 이승은 기자

환경을 지키고 선교를 돕고

신도관리위원회(위원장 신형곤 장로) 주최로 제2회 플리마켓 행사가 4월 13일 전주동부교회 지하 엘리움홀에서 열렸다.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 생활용품, 장난감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자원재활용을 통한 지구환경 보호를 실천했다. 올해에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플리마켓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총수입은 185만 8500원(순수익 158만 5390원)으로 수익금은 지난 해처럼 해외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신도관리위 제2회 플리마켓 개최



사용할 예정이다. 신 장로는 “플리마켓 물품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미영 기자

송문호 장로 노회 회계 당선

전주동부교회가 소속한 중전주노회 제29회 정기회가 4월 8일 예수사랑교회에서 열려, 노회장으로 강명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선출됐다. 이번 정

기회에서는 특히 송문호 장로가 노회 회계로 당선되는 경사가 있었다. 송 장로는 올가을 제110회 총회 총대로도 참석할 예정이다.

| 최조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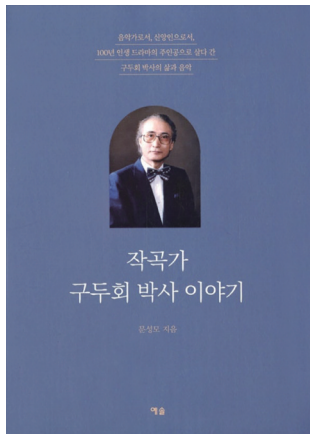
중전주노회 제29회 정기회





구두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작곡가



▶ 구두회의 삶을 담은
<작곡가 구두회 박사 이야기> 표지

지난달 ‘동녘’ 16호에서 우리는 작곡가 박재훈 목사에게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평양요한학교 출신 교회음악 개척자 3인방 중의 다른 하나인 구두회에 대해 살펴보자.

구두회는 1921년 충남 공주에서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구두회의 부친은 1903년에 설립된 공주제일교회에서 찬임부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1900년대 초엽 충청남도는 미국 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선교지역이어서, 감리교 선교사들은 공주제일교회, 영명학교, 영명여학교 등을 설립했고, 어린 구두회는 감리교회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성장하였다.

구두회의 가족은 그가 보통학교(오늘날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에 대전으로 이사하였기에, 구두회는 대전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 구두회의 회고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처음으로 찬양대에 섰는데, 이때 찬양대 지휘자에게서 악보 보는 법을 처음 배웠다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구두회는 한국인 목사, 미국인 선교사의 안내와 물질적 도움으로 1940년 4월 평양요한학교 - 미국 감리교 선교사 문요한(John Z. Moore, 1874~1963)이 설립한 학교 - 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에서 구두회는 훗날 평양요한학교 음악 3총사로 알려지게 된 장수철(1917~1966)과 박재훈(1922~2021)을

만나 형제처럼 어울렸는데, 구두회는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선배 장수철 형이 졸업한 후에 내가 음악부장이 되면서 합창 지휘는 내가 맡았고, 피아노 반주는 박재훈이 맡았다. 우리는 평양요한학교 남성합창 그룹을 조직하여 학교의 채플 시간에 봉사하였고 평양기독병원 복도에서 새벽 찬양으로 입원환자들에게 신앙적인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구두회는 6·25 한국전쟁 중 대전에 주둔한 미8군 171의무대대의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찬양대를 영어로 지휘하였다. 미군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어를 배운 구두회는 36세 때인 1957년 가을 오랫동안 꿈꾸었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구두회가 장학금을 받아 다닌 학교는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였다. 이 대학은 감리교단에서 1839년 설립한 신학교로 시작하여 1869년 현재와 같은 교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보스턴대학교는 1939년과 1969년에 각각 개교 100주년 공식 기념행사를 가졌다.

보스턴대학교에서 2년간 작곡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구두회는 42세 때인 1963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부임하여 1986년 정년퇴임하였다. 교수 구두회는 한국 교회음악계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교회음악협회’의 초기 회원이었고 1980~1981년 사이에는 이 단체의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찬송가위원회 위원, 한국찬송가공회 음악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찬송가 편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의 곡조는 공모에 의해 당첨된 것이다. 소설가이자 목사인 전영택(1894~1968)은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그린 가사를 쓰고 1967년 이례적으로 곡조를 공개모집했는데, 응모한 수십 개의 곡조 중에서 구두회 교수의 곡이 선정됐다.

구두회는 2018년 97세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박승배 집사(전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시

성경사물전시회 ‘성경을 먹다 입다 쓰다’



“성경 속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씀을 추상적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됐다.”

따스한 4월의 봄날, <동녘> 기자단은 ‘성경을 먹다 입다 쓰다’라는 주제로 전북신학교에서 열린 ‘성경사물전시회’를 찾아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김동문 선교사는 중동 지역에서 30여 년간 선교사역을 하며 수집한 유물과 사물들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성경 속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지고 맛보고 발라보는 체험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동녘> 기자단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쥐엄나무 열매를 직접 맛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깨뜨렸던 옥합 속 향유(나드)와 예수님의 장사에 사용되었던 물약을 손에 발라 그 향기를 맡아보았다. 또한 데나리온과 세겔 등 신약시대의 화폐, 등잔, 눈물 병, 생활용품 등 성경 속 여러 사건에 등장하는 사물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김동문 선교사는 “성경 사물을 체험하면 성경 속 사건과 말씀을 더욱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해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경사물전시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시가 아니기에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하지만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기독교박물관(www.segibak.or.kr)과 인천의 국제성서박물관(<http://bible.museum.or.kr>)에서는 성경시대의 사물과 기독교 유물들을

상시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으니, 자녀들과 함께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을 권한다.

| 김형열 기자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 종 철

편집인 : 안 효 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동녘>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고정희 곽약훈 구길수 권선주 김광휘 김극명 김금자 김남기
김덕기 김미영 김병국 김숙희 김옥순 김은숙 김장중 김재현
김종후 김진숙 김효순 노명우 박선규 박영대 박영삼 백성연
백은순 봉옥란 소화수 손주상 안한성 안효건 양이성 양화영
오윤자 원복주 은경옥 은화삼 이동주 이복구 이상우 이선민
이승은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승 이홍재 인정환
임선영 임순 장희선 전봉권 정규윤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진서금 진금자 최근수 최금미 최남열 최동욱 최명국 최범석
최순미 최완주 최원진 최조경 하기찬 한준석 홍영란
봉사위원회 (가나다순 · 2025.04.27. 현재)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당신을 동넉으로 초대합니다

요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로 인기 절정인 관식이, 박보검 배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과 선행을 베풀어 ‘미담제조기’로 알려진 그가 최근에 ‘더 시즌즈-박보검의 칸타빌레’라는 음악프로 MC를 맡았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그가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상대의 칭찬을 받을 때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는 단지 나를 칭찬해주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보답만이 아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격려에 감동했다는 뜻이 담겨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칭찬을 상대에게 더욱 크게 되돌려주는 이 젊은 배우의 커다란 마음, 성숙한 인격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무시와 혐오 대신에

다른 이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고, 응원하는 말들이 새어나오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의 성품을 것처럼 곱게 다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Photo by ©SINGLE LIST 최은희 기자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5: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부부모임		일요일 13:00		지정 장소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063) 275-7760

<동넉>은 전주동부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jdb.or.kr)와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ngnyeok)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dongnyeok)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전도대상자 발송, 구독소감, 후원, 이벤트 등의 문의는 네이버카페와 이메일(dong_nyeok@naver.com)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